

## 濟州島綜合學術調查 (1959) 概要

韓 相 福 \*

### I. 序 言

1959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22일간에 걸쳐 解放後 最初로 全國學界를 거의 總網羅한 大規模의 「濟州島 綜合學術調查」(The Academic Expedition of Jeju Island)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는 人文·社會·自然科學 15개 學問分野의 國內 著名 學者들과 運轉 본부 요원으로 구성된 71명의 調査團員 및 보조 조사원 24명을 포함한 95명이 참가하였다. 韓國地域社會學術調査機構 주최로 계획되고 시행된 제주도 종합학술조사는 亞細亞財團이, 1,000萬환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文敎部·내무부·交通部·보건사회부·公報室·濟州道廳·해군본부·韓國日報社가 후원하였다. 특히 이 조사에는 공보실에서 영화촬영반이 동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반하여 調査活動 상황을 시종 카메라에 담아 記錄映畫를 제작하는 동시에 現地風物을 여러모로 촬영하여 생생한 生活資料를 보존하였으며, 교통부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통일호 客車 1輛을 제공하였고, 海軍에서는 부산에서 제주까지 LST 艦艇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청과 도내의 각급 學校 및 住民들은 現地調査에 각종 便宜를 제공하였다.

濟州島에 대한 地域社會開發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한창 대두되고 있던 당시에 제주도종합학술조사는 본도의 地政學的 重要성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社會文化的 배경과 각종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學界와 社會 各층의 희망과 의욕을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북돋고 있었다. 그러한 증거를 우리는 당시의 國內 言論 기사와 사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同年 7월부터 10월에 걸쳐 본 조사의 후원기관인 한국일보사는 물론, 동아·조선·세계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제주신보·국제신보·한국경제신문·再建타임스·새세대·대학신문 등에 실린 記事와 社說·현지르포·短信 기타 각종 班別調査報告들은 이 조사에 대한 당시의 社會的 關心度를 반영해주는 하나의 척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筆者는 그 당시에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濟州島綜合學術調査團 운행본부 산악안전대의 一員으로 參加하여 漢拏山을 東西로 縱走하며 山行朝査에 임하였다. 여기에 기록하는 調査概要는 필자의 현장 노우트와 「濟州島綜合學術調査團計劃書」, 「運行計劃要綱」, 여러 학술조사반들의 조사표, 위에 열거한 新聞들의 기사와 사설, 현지 르포, 기타 調査報告 資料들을 기초로 하였다. 특히 李崇寧의 「濟州島學術調査記」(동아일보), 金鎭綏의 「歷史考古學班報告」(한국일보), 朴魯植의 「地理班報告」(한국일보), 張德順의 「綜合學術踏査 濟州道紀行」(부산일보), 趙東華의 「濟州島綜合學術調査團 落穂記」(조선일보), 高炳佑의 「濟州經濟」(조선일보), 金榮浩의 「特波員連載報告 濟州風物帖」(한국경제

신문), 林應植의 「漢拿山東西縱走記」(새세대) 등은 필자의 자료 상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 보다도 더 큰 도움을 필자에게 준 것은 調查團의 運行本部 지휘를 맡았던 鄭英昊 교수가 철저히 모아 둔 본조사에 관한 스크랩 복이다. 그 귀중한 자료를 필자에게 전해준 鄭교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뜻을 밝힌다.

## II. 調查計劃

### 1. 調查의 趣旨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 「運行計劃要綱」(1959.6.15.작성)에 따르면 地域社會의 발전과 그 기초가 되는 實態把握을 위하여 特定地域에 대한 현지조사가 요구되던 차에, 亞細亞財團의 재정적인 협조를 얻어 濟州島 전반에 걸친 綜合學術調查를 計劃하게 되었다고 한다. 6月 13일에 개최된 제 1차 全體企劃會議에서 서울대학교 총장 尹日善 박사를 조사단의 團長으로 확정하고 조사의 의의와 방향을 정하였다.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計劃書」(1959.7.1.작성)에서 밝힌 調查의 趣旨는 다음과 같다(全文 轉載).

### 趣 旨 書

今般 濟州島가 地域社會開發에서 登場된 意義와 使命은 참으로 重大함이 있다. 이에 國內 國外的 諸機關이 濟州島에 着眼하여 研究 調查와 施設計劃, 云云은 이미 오래 宣傳되어 온 바로서 國民의 周知의 事實로 되어 있는데 참으로 諸般事業의 基盤이 될 基礎資料의 研究 調查는 吾等の 科學的 研究라는 眼目으로는 아직 遼遠한 實態에 있는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

여기 本學術調查團은 從來 斷片的인 調查가 成果를 가져오지 못하

고 各其 分散된 言及에 鑑하여 全學界를 動員하고 力量과 經驗을 가진 團員을 選拔하여 徹底한 그리고 科學的인 研究調查를 爲한 前無한 一大 學事를 成하게 된 것으로 量에서나 質에서나 建國以來 初有의 行事임을 스스로 自認하며 아울러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것을 少毫도 疑心하지 않는다.

도리켜 생각하건대 濟州島의 文化的, 資源的, 地政的인 價値에 있어서는 日政時에도 認定하고 着眼한바이지만 解放後 다시 建國後 全學界의 希望과 意欲을 자못 느껴오던 것이나 人員·經費等 諸般 隘路에 逢着하여 所期의 成果를 올리지 못한 것임을 同感하더니 이제 多幸이도 亞細亞財團의 財政的 援助下에 여기 本學術調查團 派遣에 이르렀으니 同亞細亞財團에게 그 好意를 深謝하는 바이다.

이제 研究調查의 準備에 드려서 物質 器具의 整備과 輸送 其他 諸般의 不備를 느껴 憂慮되는바 적지 않기로 全員 焦燥를 禁할수 없는 바도 있기에 여기 全國 各機關의 두터운 理解와 援助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研究調查는 初有의 成果를 올릴것으로 自信하며 全員의 士氣 또한 드높은바 있음을 기뻐 마지않으며 이 學事의 成果如何는 우리 學界의 力量을 率直히 評價함이 될 것이니 全文化界의 有志 諸位와 各機關의 擔當諸位의 많은 理解와 後援鞭撻을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全團員에게는 國家社會가 期待하는 바에 어긋남이 없도록 挺身奮勵하여 所期의 成果를 올릴것을 仰託하는 바이다.

檀紀 4292年 7月 1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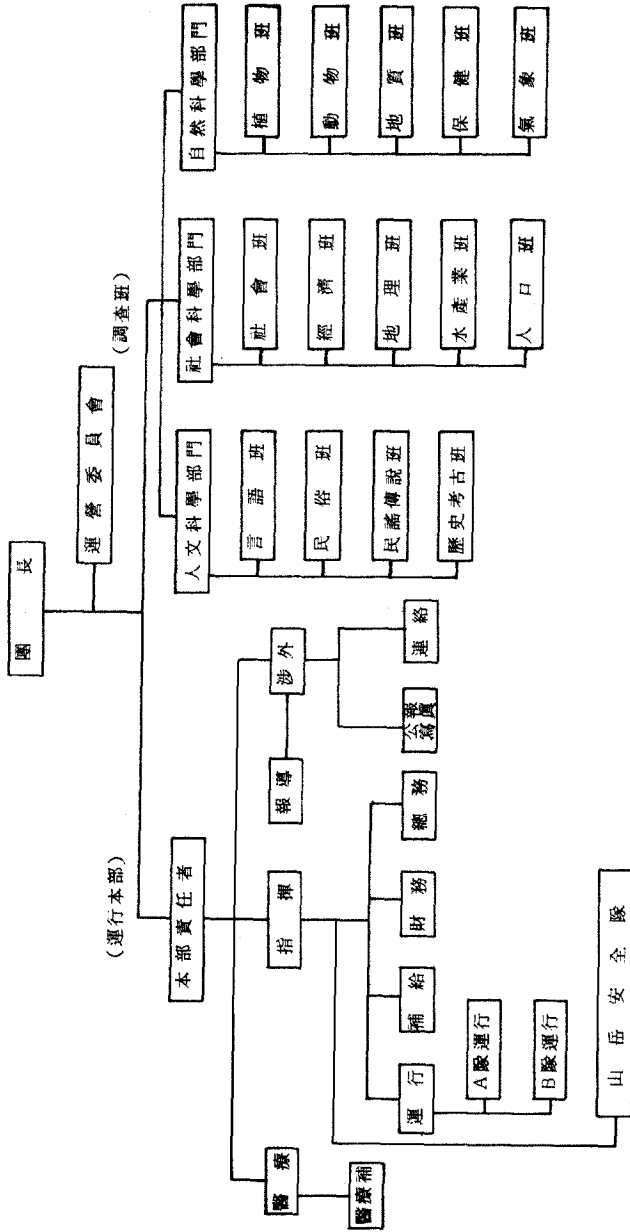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

團長 尹 日 善

## 2. 調查團의 構成

第一次 全體企劃會議에서 편성된 調查班은 人文科學部門 4개반(言語·

〈二. 引 1〉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機構



民俗·民謠·歷史考古), 社會科學部門 5개반(農業經濟·商工業·水產業·社會·地理), 自然科學部門 7개반(植物·動物·地質·氣象·保健·海洋港灣·營養調查)이었으나, 최종적인 計劃段階에서 調查團의 機構는 < 그림 1 >과 같이 수정되었다.

團查團員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團長: 尹日善(서울대학교 總長)

運營委員: 李崇寧(서울대 文理대 교수)·李敏載(서울대 文理대 교수)  
陸芝修(서울대 文理대 교수).

#### 人文科學部門

言語班: 李崇寧(서울대 文理대 교수)·全光鏞(서울대 文理대 전임강사)·李基文(서울대 文理대 강사)·安秉禧(서울대 藥대 강사).

民俗班: 李杜鉉(서울대 師대 조교수)·康允浩(梨대 전임강사)·張壽根(京畿中學 교사)·趙東華(舞踊評論家).

民謠傳說班: 鄭炳昱(서울대 文理대 조교수)·任東權(國學대 강사)·鄭漢模(同德女대 조교수)·張德順(延世대 조교수).

歷史考古班: 柳洪烈(서울대 文理대 교수)·韓治勛(弘益대 교수)·金鎭堉(延世대 조교수)

#### 社會科學部門

社會班: 李萬甲(서울대 文理대 조교수)·鄭洪鎭(서울대 文理대 조교)  
金璟東(서울대 文理대 조교)

經濟班: 高承濟(서울대 商대 교수)·朴鍾文(新興대 교수)·洪文和(서울대 藥대 교수)·高炳佑(國學대 강사)·李根熙(漢陽대 전임강사)·崔泰鎬(中央대 강사).

地理班: 陸芝修(서울대 文理대 교수)·金庚星(서울대 文理대 부교수)·金相昊(서울대 師대 조교수)·朴魯植(新興대 교수)

水產業班: 鄭文基(海務廳 水產檢査所長)·金均炫(海務廳 水產檢査所 측탁)·鄭汐潮(海務廳 水產檢査所 측탁)

人口班：姜永善(서울大 文理大 교수)·趙完奎(서울大 文理大 전임강사)·金英眞(서울大 文理大 조교)

自然科學部門

植物班：李敏載(서울大 文理大 교수)·鄭英昊(서울大 文理大 조교수)  
洪淳佑(고대 부교수)·姜佛原(釜山水産大 조교수)·李龍雨(林業試驗場기좌).

動物班：趙福成(고대 교수)·白南極(成均館大 조교)·李敬魯(고대 조교).

地質班：孫致武(서울大 文理大 교수)·鄭昌熙(서울大 文理大 교수)·金鳳均(서울大 文理大 조교수)

保健班：沈相煌(서울大 醫大 교수)·梁在謨(延世大 醫大 조교수)·曹圭常(카톨릭 醫大 조교수)

氣象班：金聖三(國立中央觀象臺 통계과장)·朴泰榮(國立中央觀象臺技士)

運行本部

本部責任者：李敏載(서울大 文理大 교수)

指揮：鄭英昊(서울大 文理大 조교수)·

運行：劉光日(서울大 文理大 조교)·元憲變(서울大 政治學科 大學院)·尹一炳(서울大 文理大 조교)

補給：金昌麟(서울大 文理大 生物學科 4년).

總務：嚴圭白(서울大 文理大 조교)

財務：高陽柱(서울大 哲學科 大學院)

涉外：李創基(서울大 大學新聞社)

連絡：孫一鉉(서울大 文理大 山岳會 OB)

會報：孫大淵(서울大 文理大 山岳會 OB)

報導：鄭漢淑(고대 조교수)

醫療：康晰榮(서울大 醫大 조교수)·崔東茂(서울大 醫大)

山岳安全隊：李載仁(서울대 文理大 物理學科 4년)·朴乙龍(서울대 政治學科 3년)·韓相福(서울대 文理大 社會學科 3년)·李宇原(서울대 文理大 政治學科 3년)·林應植(서울대 文理大 國文科 2년)·尹亨大(서울대 文理大 地質學科 1년)

### 3. 調查活動指針

이상과 같이 구성된 調查團의 조사활동지침은 대체로 각 調查單位마다 그안에 또 細分된 分野에 한 사람씩의 專攻者를 모아 각기 그 전공 분야에 臨하여 조사하도록 되었다. 또 각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한 조사단위인 班은 그 반의 구성자가 공통된 한가지 방향을 지향함으로써 그 반의 課題를 완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全調查班은 조사단 전체의 目標와 原則에 따라 統一性있는 結論을 가져올 수 있는 범위에서 調查活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사활동을 成功的으로 圓滑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단의 行政과 運行을 담당하게 될 運行本部를 조사반들과는 별도로 두어 企劃과 準備段階로부터 조사연구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활동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각 調查研究班은 각자의 主題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文獻調查와 實行計劃을 짜고 調查表를 作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準備가完了되면 先發隊를 파견하여 조사단 전체의 조사활동 및 宿食의 便宜를 미리 갖추도록 하였으며, 조사단이 濟州島에 到着하면 團體活動이 끝나는데로 각 調查單位別로 미리 예정된 計劃에 따라 分散하여 全島에 걸친 調查活動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각 조사반의 조사활동이 끝나면 全團員은 각기 現地에서 수집한 資料를 재검토하고 整理하여 報告書를 作成하여 運行本部에 提出하도록 하였다.

宿食은 모두 本部에서 指定한 業所에서 coupon制로 실시하도록 하고 쿠폰의 발급은 매주 日曜日에 각 조사반에 전달하며, 濟州市와 西歸浦에서는 任意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쿠폰은 適當 1人 90點(1



點이 50 환)이며, 그 외에 매주 1회씩 담배(그 당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필터 담배 아리랑이 나왔음), 비스킷, 사탕 기타 基本消耗品을 본부에서 補給하였다.

交通便은 제주도의 一周 循環道路에 한하여 본부반에서 제공하고 그 밖의 교통은 各隊에 맡겼다. 조사활동 중에 갖추어야 할 個人裝備로는 제주도의 氣象條件에 맞추어 雨裝準備에 만전을 기하도록 防風·防水·保溫이 가능한 윈드자켓·편초·기타 團服으로 淡黃色 카키복을 특별히 고안하여 발랑디에(佛 化學者로서 그 무렵에 來韓하였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본으로 한) 옷을 만들어 공급하였다. 帽子는 헬멧과 베레를 준비하도록 하고, 구두는 되도록이면 칸바스靴나 登山靴 또는 軍靴를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雨期에 대비하여 雨靴를 따로 준비하였다. 寢具는 침낭이나 毛布 2枚가량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艦上에서의 遵守事項을 따로 인쇄하여 배포함으로써 團員들로 하여금 航海와 艦艇要員 활동에 支障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 4. 調查內容

調查團의 各 班別 調查研究 課題와 內容은 다음과 같다.

##### 人文科學部門

言語班：方言일반조사, 陸地語의 침투상태, 借用語로서의 日語의 현황, 國語史 諸課題의 제주도 방언에 있어서의 검토.

民俗班：精神文化와 物質文化에 걸친 종합적인 濟州島 民俗誌作成을 위주로 하되, 衣食住, 民間信仰·民俗藝能과 諸職業.

民謠傳說班：民謠의 分類(海上·陸上生活謠·地域別·主題別), 陸地民謠의 영향 및 비교·巫歌 기타 詩歌, 歷史文獻所載의 傳說, 傳說·說話·巫歌의 分類 및 陸地와의 關係, 기타 音樂 및 原始文學으로서의 특성.

歷史考古班：先史時代로부터 州胡耽羅國을 거쳐 新羅·高麗·朝鮮時

대에 일어났던 三別抄抗爭과 이를 征伐한 元과의 관계, 民亂事件 기타 大韓帝國 이후 현재에 이르는 사건들, 특히 1901년의 天主教迫害事件과 1948년의 4·3事件 등을 포함.

#### 社會科學部門

社會班：濟州島의 特殊地域社會의 性格에 입각한 社會構成의 諸要素를 調査分析하기 위하여 51個 問項으로 구성된 調査票를 이용함.

經濟班：商工業分野에서는 企業經濟, 주요 生産品, 交易, 新規工業, 沃度資源 調査를 하고, 農業分野에서는 營農形態, 農家經濟, 農業勞動力, 棉作, 半農半漁實態, 水田農業開發의 可能性을 조사함.

地理班：聚落構成, 土地利用, 資源保全, 火山地形, 砂丘, 海岸地形을 조사함.

水產業班：漁業人口와 業種別 經營·漁撈·生産費, 水産資源과 海岸線 및 漁港調査.

人口班：人口動態와 性比·結婚率·長壽者 家系調査

#### 自然科學部門

植物班：濟州島 전반에 걸친 植物相에 대하여 植物區系, 漢拏山에서 陸地植物의 森林限界決定, 植物群落, 蘇苔類·菌類·海藻類 등의 分類學的 調査.

動物班：濟州島 전반에 걸친 動物相에 대하여 昆蟲 및 기타의 動物相을 주요 과제로 조사함.

地理班：地質의 層位, 火山構造線, 溶岩遂道 등을 조사함. 특히 應用地質의 조사에 중점을 둠.

保健班：濟州島民의 醫療必需量, 要求量 및 充足量에 관한 調査와 母子保健에 관한 조사에 중점을 둠.

氣象班：濟州島 特殊氣象의 諸要因 및 各氣象의 觀測과 그 分析에 중점을 둠.

## 5. 調查日程計劃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計劃書」에 따르면 調查日程計劃은 다음과 같다.

- 7月 20日: 調查團의 結團式을 서울대학교 教授會館에서 갖고 先發隊 제 1진(本部員 2人)은 航空便으로, 제 2진(본부원 2인)은 列車便으로 서울을 出發.
- 7月 22日: 調查團 全員이 列車便으로 서울을 出發하여 다음날 釜山에 到着.
- 7月 23日: 船便으로 釜山港을 출발.
- 7月 24日: 調查團 全員이 濟州市에 到着하여 運行本部를 設置.
- 7月 25日: 全團員 休息
- 7月 26日: 各 調查班別로 조사준비와 現地豫備踏査.
- 7月 27日~8月 2日: 島內 調查活動豫定圖(<地圖 1>參照)에 따라 各班別로 調查活動을 전개하고 運行本部는 濟州市에 常駐하며, 調查班들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調查隊로 나누어 活動함.
- A隊: 西行으로 시작하여 東便으로 歸着(言語·民俗·民謠傳說班)
- B隊: 東行으로 시작하여 西便으로 歸着(歷史考古·地理·水產·保健班)
- C隊: 特定地域을 重點的으로 調查(社會·經濟班).
- D隊: 漢拏山을 主對象으로 調查(植物·動物·氣象·地質)
- 山岳安全隊: 山岳安全保障路線(<地圖 1>참조)에 따라 活動함.
- 8月 3日: B隊는 城山浦 앞 牛島를 訪問하여 調查함.
- 8月 6日: 各 調查班 全員이 西歸浦에 總集結. 本部는 6일부터 8일까지 西歸浦로 移轉. 山岳安全隊는 계속 山中活動 A·B隊는 6日 西歸浦에 集結하여 8日까지 現地調查를 하고 C隊는 3日 西歸浦에 集結하여 8日까지 현지조사를 하며, D隊는 3日 제 1차 山中活動을 마치고 5日 西歸浦에 集結했다가 7日 제 2차 산중활동을 開始.



- 8月 9日: 運行本部는 西歸浦에서 撤收하여 濟州市로 復歸함. A, B, C隊는 西歸浦를 출발하여 다음 現地調查를 계속.
- 8月 12日: A, C, D隊는 城山浦에 集結하여 牛島를 訪問 調査함.
- 8月 15日: 각 調査班은 現地調查活動을 終了함.
- 8月 16日: 調査團 全員이 濟州市에 歸着하여 休息함.
- 8月 17日: 조사단 全원이 海軍艦艇便으로 濟州港을 出發함.
- 8月 18日: 조사단 全원이 서울에 歸還.
- 8月 23日: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 解團式을 가짐(場所未定).

### III. 調査의 施行過程

#### 1. 調査團의 運行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이 공식적으로 發足된 것은 1959년 6월 13일에 개최된 第1次 全體企劃會議에서였다. 이 회의에서는 本調査의 意義와 方向을 설정하고 運行本부와 調査班을 대체적으로 편성하고 잠정적인 日程計劃을 짜서 공식적으로 제주도 종합학술조사단을 發起한 다음, 連絡事務室을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東部研究室內에 두었다. 이에 따라 6월 15일에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 運行計劃要綱」을 作成하고, 7월 1일에는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計劃書」를 만들어 관계 要로와 人士들에게 配布하면서 7월 20일의 結團式 招請狀을 尹日善 團長의 명의로 발송하였다.

結團式은 7월 20일 午後 三時半 서울대학교 醫大 構內 含春苑에 있는 서울大學校 教授會館에서 거행되었다. 尹日善(서울대학교 총장) 團長을 비롯한 71명으로 구성된 同調査團 結단식에서는 全聖天 公보실장, 李敏河 서울대학교 文리과대학장, 콜라한 아시아재단 부총재 등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하여 조사단의 활동을 격려하고 團旗를 전달하였다.

先發隊 제 1진은 예정대로 7월 20일 KNA 航空便으로 서울을 출발

하여 濟州市에 到着하였다. 조사단의 運行擔當 劉光日, 連絡擔當 孫一鉉 두사람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제주시에 도착하여 宿所와 本部設置 및 관제 기관들과의 협조 사항들을 점검하고, 이에 뒤따라 20일 列車와 船便으로 서울을 출발, 22일 제주시에 도착한 선발대 제 2진과 합류하였다.

나머지 調查團員들 중에서 團長(8월 1일 KNA항공편으로 출발)을 제외한 66명은 7월 22일 밤 10시 交通部가 제공한 釜山行 夜間 제 5열차 統一號의 1輛을 타고 서울驛을 출발하여 다음 날인 23일 아침 8시 釜山驛에 도착하였다. 조사단 전원은 곧바로 부산 중앙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海軍艦艇 LST 807 호에 乘船하였다. 그러나 뜻하지않은 海上의 氣象豫報로 11시에 出港豫定이었던 계획을 변경하여 出港이 무기한으로 延期되자 下午 5時부터 10時까지 外出을 허용받아 大多數의 團員들은 上陸用 小艇 2척에 分乘하여 부산에 다시 상륙하였다. 南浦洞·中央洞·光復洞 등지를 우왕좌왕하면서 단원들은 항구도시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고, 밤 10시에 다시 乘船하였으나 여전히 氣象警報가 풀리지 않아 그대로 艦內에서 1泊하고 24일 하오 1시에 드디어 釜山港을 出發하였다. 기본 톤수 2,000餘톤의 LST함정은 조사단원과 보조조사원들을 합친 95명의 一行을 싣고 海圖를 따라 多島海를 거쳐 航海 20餘時間만에 본래의 예정보다 하루 늦은 25일 上午 9時에 濟州港 山地串 부두에 到着하였다.

제주항 산지곶 부두에는 濟州道廳의 金善玉 산업국장을 위시하여 敎育界 人士들 50여명이 出迎하여 해군 함정에서 上陸하는 조사단원들을 환영하였으며, 제주시의 晨星女中 학생들도 조사단원들에게 花環을 증정하였다. 調查團 全員은 毗羅호텔과 太平旅館에 나누어 投宿하면서 일단 旅裝을 풀고 濟州北國民學校에 조사단의 本部를 설치하였다. 본부에는 警備電話로 제주도 全道の 各地와 業務連絡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에는 제주도종합학술조사단을 위하

여 특별히 마련된 환영 음악회가 신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다. 全仁洪 道知事の 환영사와 신성여고 3년 이영신양의 인사가 있는 다음, 제주여자중·고등학교 합창단의 오돌또기와 도라지타령 합창, 제주남국민학교 2년 박명주양의 부채춤, 신성여고 1년 임해자, 3년 강신생양의 오돌또기 무용, 제주북국민학교 5년 전정화양의 피아노독주 [에리사를 위하여], 제주여중 2년 김효순·김연림·제주여고 1년 이영순양의 무용「김매는 아가씨」, 신성여중 3년 송화순양의 독창「꿈길에선」, 제주동국민학교 2년 박해주의 1명의 무용「숨바꼭질」, 신성여고 2년 길길자·문의자양의 피아노연탄「대관식행진곡」, 제주여고 1년 이영순, 2년 조금자양의 무용「海女」, 신성여중고 합창단의 모차르트 세레나데와 헨델의 할렐루야 합창이 계속되고 나서, 제주여고 3년 한혜자양의 인사로 막을 내렸다.

7월 26일부터는 각 조사반별로 學術調查活動을 개시하였고, 8월 1일에 서울에서 調査團長 尹日善박사와 全聖天 公報室長, 그리고 아세아재단 총재 제임스씨가 KNA편으로 제주도에 와서 記者會見을 갖고, 2일에는 西歸浦 天池호텔에서 全團의 調査中間報告 및 브리핑이 있었다. 8월 5일부터는 颱風 제 6호 「엘렌」號가 불어와서 言語班과 植物班의 일부가 加波島에 갇힌채 소식이 두절되었으며, 漢拏山 白鹿潭에 자리잡은 氣象班도 진퇴양란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3일간의 태풍 뒤에는 다시 정상적인 학술조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은 또 8월 9일과 10일 兩日에 걸쳐 濟州劇場에서 學術大會도 개최하였다. 文總濟州支部와 朝鮮日報濟州支局 공동주최와 再建타임스社 후원으로 개최된 이 학술대회에서는 「國語學에서 본 濟州島 方言」(李崇寧), 「資源에 관한 諸問題」(陸芝修), 「國文學과 耽羅」(鄭炳昱), 「世界經濟의 現況과 展望」(高承濟), 「濟州島民의 生活改善策」(沈相煥), 「動物界의 未來」(趙福成)등의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濟州道伯이 조사단원들을 送別하는 파티가

있었다.

20餘日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8월 11일에는 下午 6時에 海軍艦艇 LSM으로 濟州를 出港하여 釜山 經由 上京할 계획이었으나 해군의 작전 사정으로 군함이 3일간 延着된다는 연락을 받고, 사흘을 더 기다리기보다는 一般旅客船으로 木浦 경유 서울로 가자는 衆論에 따라 결국 6시 출항인 濟州—木浦 連絡船 「화양號」를 타기로 결정하였다. 제주에 올 때는 二千餘톤의 軍艦을 독점하였지만 제주를 떠날 때는 二百餘톤에 불과한 客船에 다른 여객들과 함께 乘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下午 6時 正刻 조사단원 49명(나머지 21명은 미리 조사가 끝나는 대로 비행기편으로 귀경)을 태운 「화양호」가 出港할 때는 官民多數의 歡送과 부두 離別의 流行歌마저 情懷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木浦港에서 下船하여 湖南線列車 「태극호」편으로 갈아타고 8월 12일 下午 7時 40分 서울역에 도착하였다.

## 2. 現地調査活動의 經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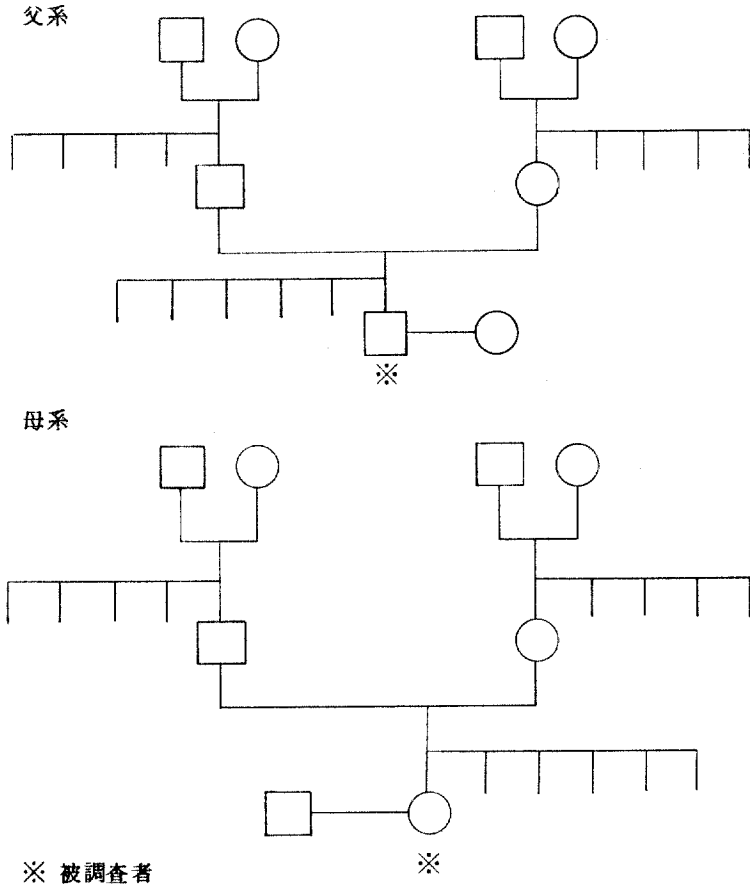
濟州島綜合學術調査團의 본격적인 現地調査活動은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계속되었다. 우선 조사활동 첫날에는 標本地域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있는 社會班이 涯月面 錦城里로 출발하고 나머지 조사단원들은 대개 濟州市에서 조사반별로 준비작업을 마친 다음, 27일에 經濟班만 제주시에 남겨둔채 東行과 西行 및 山岳으로 나뉘어 현지로 출발하였다. 東便으로는 歷史考古班·地理班·保健班·醫療班·水産班이, 西便으로는 言語班·民俗班·民謠傳說班·人口班이, 그리고 山岳으로는 植物班·動物班·地質班·氣象班·山岳安全隊가 출발하였다.

西便으로 떠난 A隊는 우선 涯月に 들러 涯月農高 張應善校長의 안내로 그 마을의 집합장소인 「堂나무」그늘로 가서 民謠傳說班에서는 地名의 유래와 說話를 주로 조사하고 海洋文學의 「漂海錄」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民俗班에서는 巫俗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人口班에서는 조사표를 이용하여 出生力과 人口動態 및 長壽者 家系 調査를 실시하였다. 특히 장수자 가계조사는 父系와 母系를 따로 조사하였는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조사표의 그림을 참고로 例示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長壽者 家系 調査表



翰林地域 특히 立石里에는 마을의 地名 그대로 「선돌」이 大林洞과

洙源洞의 경계 지점에 있어서 歷史的인 考證과 이와 관련된 傳說資料를 수집하였다. 또 翰林邑에서는 松山堂의 巫堂을 청하여 松山堂本鄉풀이의 巫歌를 錄音하였다. 그러나 예로부터 유서 깊은 遮歸堂의 무당은 이미 20여년 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7月 30日 空軍 「스리쿼터」로 한림을 떠나 慕瑟浦에서 1泊하고 安德面 和順의 해수욕장과 山房山의 窟寺에 들러 傳說과 民謠를 수집하였다. 화순 백사장을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두개의 물줄기 「하랑수」와 「돛물」의 충돌로 일어나는 「물쌈」은 海水의 充溢로 水路가 막혀 일어나는 자연현상임을 확인하였다. 和順 앞 바다에서 漁船의 沙工들로부터 수집한 뱃노래는 民謠班의 귀중한 수확이었다. 여기서 수집한 뱃노래의 한 귀절만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가자 가자 영주바당  
 물속으로 젓엉 나가자  
 이어사나 흥 이어사나 흥  
 이어차 소리에 배 젓엉 가자  
 갈땀 보난 멀어지꼭  
 올땀 보난 바디어 진다  
 어느세면 저갯을 가리  
 이어차라 이어차라  
 한갯이나 젓엉 나가자

.....

8월 1日 和順에서 西歸浦로 가는 도중 安德溪谷으로부터 4 km 떨어진 海岸 기슭에 「핀돌」이 있다하여 이를 확인하고 天帝淵폭포의 「윗얄」 「알얄」 「가랫얄」 3층 폭포를 관찰하고 서귀포에 들러 天池淵폭포와 正房폭포를 관광하였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 調查團員 모두가 서귀포에 集結하여 조사활동 전반부의 中間報告 및 이에 대한 檢討와 討論이 있었다.

言語班의 단원들은 加波島에 조사차 들어가서 颱風이 경과한 뒤에야 나올 수 있었다. 民俗班에서는 8월 4일부터 3일동안 「큰굿」을 벌였다. 원래는 큰굿이 連7일을 要하지만 사흘에 끝내도록 특별히 간청한 것이다. 錄音과 撮影班이 동원되어 제주도 특유의 굿을 採錄하였다. 8월 5일에는 運行本部에서 空軍用 대형 「추력」으로 서귀포의 본부 단원을 제주시로 철수시켰다. 여기에 民俗班을 제외한 민요전설반과 動物班이 함께 따라 제주시로 돌아갔다.

東便으로 떠난 B隊는 空軍用 「스리쿼터」로 濟州島 東南쪽으로 돌아 우선 金寧里에 있는 蛇窟을 답사하였다. 길이 600미터 폭이 10미터인 玄武岩 自然洞窟인 이 蛇窟과 龍淵 및 城山浦에서는 自然地理 특히 地形과 地勢에 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였다. 歷史考古班은 濟주시 吾羅里에서 「돌멘」 20餘基를 발견하고 그 중에서 5基를 발굴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盜掘된 것으로서 돌멘의 形式이나 埋葬樣式에 있어 考古學上的 새로운 資料를 첨가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었으나 遺物에 있어서는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다만 吾羅里와 龍潭里의 발굴에서 石斧와 土器片들을 얻어 石器時代와 金石併用期의 濟州歷史를 復元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地理班에서는 濟州島의 人口調査와 牧畜의 실태 및 歷史的 背景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保健班에서는 제주도 勤勞女性들의 健康狀態를 조사하기 위하여 濟州女高 文仁子 교사와 學生 6명, 제주도 출신 淑大學生 金福姬·韓京子, 濟州師範學校 학생 8명 등을 現地 제주북국민학교에서 직접 훈련시켜 제주도 各급 學校의 教室에서 설문조사 및 海女들의 個人 體位를 調査하였다. 또 醫療班에서도 각 邑面所在地 국민학교에서 內科·外科·眼科·小兒科 등의 부문에서 無料診療를 행하는 한편, 風土病調査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조사활동 지역은 朝天(7월 27일), 舊左(28일), 城山(29일), 表善(30일), 南元(31일), 西歸(8월 1일), 中文(3일), 安德(4일), 大靜(5일), 翰京(6일), 翰林(7일), 涯月(8일)등이다.

水産班은 주로 제주도의 水産開發計劃과 展望에 관하여 조사하고 海水 및 淡水魚 채집과 그 명칭에 대한 方言을 조사하였다.

한편 C隊에 屬한 社會班과 經濟班에서는 특정한 標本地域에서 調査表에 의한 面接調査를 실시하였다. 특히 社會班은 涯月面 錦城里에서 가족·친족·혼인·祭祀·班常의 身分關係·이웃·社會團體·農家·漁業·기타 職業 및 地主小作관계·수입·지출·生活水準·市場行爲·생활상의 價値와 態度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經濟班에서는 生計費調査와 產業構造調査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工業調査表에 포함된 項目들로는 事業者의 명칭과 資本金·主要施設·生産品·從業員·生産費·經常資本·企業財務·操業·販賣·成長率·기타 道內 競爭企業體에 관한 것들이 있다.

漢拏山을 主對象地로 調査活動을 전개한 D隊는 植物班의 경우 採集行程의 코스로 橫斷路를 擇하는 한편, 上峰의 植物相, 한라산의 남·북·동면의 菌類, 牛島·성산포·모슬포·가과도·애월·한림등지의 海藻類 조사를 실시하였다. 動物班에서는 주로 한라산에 서식하는 昆虫과 小型 動物을 조사하여 표본을 채집하고 分類하였다. 氣象班은 二部로 나뉘어 일부는 漢拏山 頂上에서 氣象觀測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濟州島를 一周하면서 氣상을 관측하였다. 地質班은 漢拏山 頂上部의 火山噴出順序와 西歸浦層의 露出狀態 및 城山浦 日出峰의 塔形層을 상세히 조사하고 洞窟과 地下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山岳安全隊는 漢拏山の 東西루트를 開拓하는 데에 注力하여 7월 26일 翰林으로부터 시작해서 눈오름(雪岳), 上花田(당시 人家가 20戶가량 있었음)·漢大岳·老路岳(1,069m)·赤岳(1,061m)·頂上(1,950m)의 西壁을 거쳐 白鹿潭에 7월 30일 도착, D隊의 動物·植物·地質班과 合流하여 中間補給을 받았다. 다음날 D隊는 靈室奇岩을 向해 떠나고 山岳安全隊는 王冠陵을 거쳐 土赤岳(1,402m)·沙羅岳(1,330m)을 등반한 다음, 沙羅湖에서 쉬었다가 城板岳·御後岳을 등반하고

8월 4일 새벽에 濟州市에 돌아왔다.

#### Ⅳ. 調查結果

以上에서 살펴본 濟州島綜合學術調查의 計劃과 施行을 통하여 얻은 結果를 人文·社會·自然科學 部門의 學術調查班別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言語班

濟州島方言을 音韻論·文法·語彙 등의 분야로 나누어 철저히하고도 科學的인 연구를 시도한 言語班에서는 제주도 방언에 대한 記述的 研究의 기초를 확립하였다고 한다. 원래 제주도방언에 대한 價値는 國語史的인 觀點에서 매우 重要視되어 과거에도 음운 및 형태에 대하여 몇가지 중요한 사실이 지적되어 왔으나 이번 調查에서 그것을 더욱 完全히 補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言語班은 태풍으로 加波島에 예정보다 오랫동안 갇혀있었던 까닭에 더욱 철저한 方言資料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가파도는 濟州本島와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제주도방언의 古形을 그대로 保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밖에 제주도에 있어서 標準語教育의 實態에 대해서도 많은 資料를 수집하였다고 한다.

##### 2. 民俗班

巫歌研究에 주력을 기울인 民俗班에서는 굿을 여러차례 마련하고 휴대용 錄音器로 巫歌를 採錄하는 한편, 公報室의 攝影班과 공동으로 記錄映畫를 제작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現地の 民俗學徒들이 직접 현지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日帝時代에 秋葉隆이 通譯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채집한 巫俗과 巫歌 자료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정확한 자료를 모을수

있었다고 한다.

### 3. 民謠傳說班

民謠部門에서는 약 600首에 달하는 민요를 分類하고 比較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錄音器를 통하여 採錄된 민요는 지금까지 未開拓分野로 남아있던 樂譜作成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期待되었다. 傳說是 150餘篇을 수집하였으며, 說話部門에서는 涯月中高校長 張應善氏로부터 朝鮮時代의 「漂海錄」을 열람할 수 있었다. 이것은 國文學史上 거의 唯一한 海洋文學 작품으로서 作者는 英祖시대의 張漢喆이다. 그는 英祖 46年(1790) 24歲에 鄉試를 首位로 통과하고 中央의 科擧試에 응하려고 上京하다가 도중에 遭難하여 南方一帶를 漂流하게 되었다. 同年 12月 25日에 濟州를 출발한 그는 12월 28일에 琉球國 虎島에 漂着하였고, 翌年 1월 1일에는 倭海賊을 만나 거의 生命을 잃을 뻔하다가 禍를 면하고, 1월 2일에 中國人으로서 安南에 亡命한 商人 林遵을 비롯한 一行 29명과 함께 乘船하여 安南을 출발하여 1월 6일에 鷺魚島 西方에 또 漂류하여 日행중 19명이 溺死하고 겨우 10명만 生存하게된 慘事가 있었다. 1월 14일에 靑山을 출발한 그는 唐津을 거쳐 1월 16일에 일단 濟州에 돌아왔다가 1월 19일에 다시 上京하여 그해 5월 8일에 濟州에 歸鄉하기까지의 무려 5개월간의 漂流體驗을 純漢文 日記體로 기록하였다. 그는 英祖 50年(1794)에 文科에 登弟하고 濟州島의 大靜縣監을 지냈다.

이 作品이 實記라는 점에서 그 當時 南方諸國의 風俗과 倭·安南·琉球 등과 朝鮮과의 國際關係에 대한 歷史的인 면에도 새로운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조사당시에는 張校長이 傳來의 家寶라고 寫眞을 찍는 것까지도 거부하여 조사자들이 열람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 4. 歷史考古班

調查當時까지는 거의 存在하지 않으리라고 믿어졌던 先史時代의 支石墓群을 발굴하고 이를 調査한 결과, 지식묘의 構造로 보아 北方系文化가 濟州島에도 확실히 流入되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發掘遺物은 石斧(吾羅里·龍潭里 第1, 3, 4號 支石墓), 土器片(同), 石箸(3號), 土鍾(2號) 및 石棺(三泉洞)이며, 이로써 新石器時代·金石併用期時代·初期鐵器時代文化의 樣相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城邑里城邑址, 法華寺址, 大靜郡廳址, 別防鎮城址, 大林 殊原里「선돌」 등 朝鮮時代의 濟州島 民政資料와 壬戌年民亂事件, 辛丑天主教徒迫害事件에 대한 歷史的인 資料를 얻었다. 그러나 四·三事件의 詳細한 史料는 島民들의 感情과 警察의 非公開로 수집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 5. 社會班

涯月面 錦城里에 대한 社會調查의 結果로 얻어진 調査表는 조사지역의 家族·親族·婚姻에 관한 量的 資料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農業과 漁業, 地主小作關係 收入·支出·生活水準·市場行爲, 기타 여러 가지 生活面의 價値와 態度에 관한 量的 資料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 자료의 일부는 나중에 申幸 씨(그당시 서울大 文理大 社會學科 3年生으로 社會班 調査補助員으로 참가하였음)가 大學卒業論文을 쓰는데 이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자료는 調査表 그대로 현재 필자가 保管하고 있다.

#### 6. 經濟班

濟州島의 經濟事情을 조사한 經濟班에서는 生計費調查를 통하여 陸地部와의 差異點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馬鈴薯가 제주도 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동태적으로 밝히고, 전형적인 兼業經濟現象이 農家所得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商業構造面

에서는 後進의인 특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工業原料 立地條件의 특성을 究明하고 女子勞動力의 活用狀況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경제반 조사의 결과라고 한다.

### 7. 地理班

地理班에서는 濟州島의 牧畜起源이 高麗時代까지 소급하므로 이를 역사적으로 考察하기 위하여 現在의 共同牧場의 기원과 官牧時代의 遺跡 및 烙印의 變遷過程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중점을 둔 항목들은 각 共同牧場의 명칭과 所在地, 所有者, 放牧形式, 放牧頭數·給水施設·牧草種類, 繁殖·品種改良·家畜衛生·牛馬의 移動 등이다.

### 8. 水産班

水産班은 濟州地方 海務廳에서 水産開發과 淺海 및 干瀉地開發 5個年計劃 실시 경과와 전망에 관한 調査를 실시하는 한편, 海産魚 38種과 淡水魚의 採集 및 그 명칭에 대한 方言을 조사하였다.

### 9. 人口班

이번 調査結果로 人口班에서는 職業別 人口構成, 出生率과 死亡率, 出生性比등을 포함하는 濟州島 人口特性을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다른 지역 인구특성과 比較할 수 있는 資料를 얻게 되었다. 특히 出生率과 出生性比를 遺傳學的 측면에서 比較研究할 수 있는 資料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만하다. 濟州島 人口分布의 특색은 첫째로 人口의 停滯性이고, 둘째는 人口構成에 있어서 男女比率의 不均衡性(4對6)이며, 셋째로 人口分布의 偏在性(海岸地域)으로 요약된다. 이 세가지 특색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우선 統計的인 數値를 파악하여 分布圖와 圖表를 작성하고 그 原因과 條件들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特殊한 自然·人文環境·社會的-歷史的 조건등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考察을 주로 하였



다.

## 10. 植物班

식물반에서는 種子植物 부문에 종래의 採集行程 코스와는 달리 橫斷路를 택함으로써 종래에 알려지지 않은 종자식물 약 10餘種을 새로 채집하는 한편, 濟州島에 散在한 7~8개의 上峰에 대한 植物相의 比較結果는 각기 高度와 긴밀한 關係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菌類 부문에 있어서는 漢拿山의 南北과 東側의 버섯類를 채집함으로써 현재 제주도에서 盛行되고 있는 「표고」의 栽培狀況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버섯類의 약 80種이 채집되었다고 한다. 藻類 부문은 牛島·城山浦·西歸浦·慕瑟浦·加波島·涯月·翰林 등지에서 海藻類를 채집하고 조사 분류하여 濟州島 全域에 걸친 海藻相의 概觀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 11. 動物班

濟州島의 全域에 걸쳐 昆蟲·小型動物·無脊椎動物 등을 조사한 動物班에서는 總 2,671點을 채집하였는데, 그 중에는 線形動物(1), 環形動物(2), 軟體動物(30), 節足動物(1,247), 昆蟲類(1,200), 蜘蛛類(20), 多足類(2), 甲殼類(25), 魚類(15), 兩棲類(15), 爬蟲類(7), 鳥類(55), 哺乳類(2), 기타(50)의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 12. 地質班

濟州島 火山岩의 噴出溢流 순서에 대한 종래의 견해에 따르면, 森島熔岩(粗面岩), 山房熔岩, 別刀峰熔岩, 西歸熔岩, 長岩玄武岩, 非頭品質玄武岩, 漢拿山玄武岩, 軍山玄武岩의 순서로서 대체로 酸性熔岩을 거쳐 鹽基性熔岩이 분출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地質班의 조사에 따라 酸性岩·鹽基性岩·中性岩의 순서로 修正하게 되었다. 즉 한라산 頂上部의 火山분출 순서에 있어서는 中性인 安山岩이 현무암보다 앞선 것

으로 생각되었으나 이번 관찰로 非頭品質玄武岩이 안산암보다 앞선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西歸浦의 露出狀態로 보아 環西歸浦層의 노출 부근은 第三紀末期에 沈降하여 서귀포층을 推積시키다가 第四紀에 이르러 隆起로 시작되었으며 60개의 응기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城山浦 日出峰의 타프層 관찰 결과에 따르면 성산포 부근의 舍出石層은 서귀포층보다 後期 퇴적층인 것 같다고 한다. 翰林窟의 鍾乳岩은 라복鍾乳石으로서 後에 透해 들어온 石灰分(貝殼砂에서 溶解된 것)에 의하여 彼覆되어 외견상 鐘乳石의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地下水는 각 火山岩 사이에 있는 不整合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두께 약 60m에 달하는 서귀포층의 상세한 層序가 밝혀졌으며,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뚜렷한 化石層 3枚 중에서 많은 化石을 채집하였다. 그 중에는 未發表種이라고 추측되는 數種의 軟體動物化石과 蟹化石·珊瑚·魚類 및 蘇苔類가 발견되어 學界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 13. 保健班과 醫療班

保健班에서는 國民醫療經濟에 관한 基礎調査의 結果로 醫師들의 收入狀態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濟州島民들의 醫療行爲 특히 병원·의사·전문의·종합병원·보건소·漢醫·침술·整骨院·무당 등을 찾아가는 頻度와 진단의 病名·치료방법·효험과 치료결과에 대한 満足度·醫藥費 등에 관한 統計資料도 수집하였다. 그리고 海女들의 個人 體位조사에서는 그들의 年令別 職歷·病歷, 현재의 健康狀態·體格과 體力 특히 肺活量과 呼吸量, 呼吸數·맥박수·呼吸豫備量·止息時間 등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였다. 또 醫療班에서는 無料診療를 실시하는 한편, 肝디스토마의 流布 및 象皮病(수종다리)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였다.

#### 14. 氣象班

氣象班에서는 漢拏山과 濟州島 陸地部 全域 및 海岸의 氣象資料를 수집하여 새로운 氣象圖를 作成하였다고 한다. 특히 調查期間中에 颱風 제 6호 「엘렌」號가 제주도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每年 東支那海를 거쳐 濟州島와 韓國 全域을 통과하는 颱風의 형성과 진행과정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 V. 結語

濟州島綜合學術調查가 人文·社會·自然科學을 포함한 거의 모든 國內 學界의 관심 속에서 計劃되고 施行되어 調查研究資料가 수집된 지도 벌써 25년이 지났다. 그 이전에는 물론 그 이후 四半世紀가 지난 오늘 까지도 그만한 규모의 제주도종합학술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도 제주도종합학술조사는 그 規模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國內 學界의 力量과 濟州島 研究에 대한 學者들의 關心에 있어서 매우 重大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調查結果가 아직까지 綜合報告書로 公刊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조사연구의 결과를 4卷의 종합보고서로 간행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調查團員 각자가 수집한 자료들을 자기 학문의 專門學術誌에 分散的으로 發表하면 제주도에 관심있는 일반 독자들이 알 길이 없고 또 종합학술조사의 의의도 흐려지기 때문에 綜合報告書의 形式을 갖추어 人文·社會·自然·本部運營의 4冊으로 간행할 계획을 세우고 出版에 필요한 豫算도 700萬환으로 책정하여 재정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러나 結果는 아직까지 종합보고서를 출간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 原因이 재정형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조사단원들의 성의부족 때문이었는지 그 당시의 사정을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조사단의 중요

한 결정권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이미 他界하였거나 停年으로 일선의 敎職과 研究職을 떠나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다.

四半世紀가 지나는 동안 學界의 世代도 바뀌었고 여러 分野의 研究人力과 學問水準도 괄목할만하게 成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그 동안에 여러가지 형태의 協同研究나 綜合調査의 經驗도 축적된 것이 사실이다. 25년 전에 실시한 제주도종합학술조사의 概要를 정리하면서 지난날의 未熟했던 經驗을 되새기고, 오늘의 우리 研究人力과 科學的인 調査能力을 최대한으로 活用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좀 더 名實相符하고 發展的인 濟州島綜合學術調査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고 싶은 所望이 간절하다.

### 濟州島綜合學術調査 關係資料

#### 濟州島綜合學術調査團

「運行計劃要綱」(1959. 6. 15)

#### 韓國地域社會學術調査機構

「濟州島綜合學術調査團計劃書」(1959. 7. 1)

#### 日刊新聞 記事 및 社說(題目)

「全國規模學術調査」(韓國日報 7. 8)

「濟州島綜合學術調査」(世界日報 7. 8)

「全國規模의 學術調査에 바라고 싶은 것」(韓國日報 7. 9.社說)

「濟州島地域調査 成果에 期待」(韓國日報 7. 14 社說)

「濟州島綜合學術調査團結團」(韓國日報 7. 21)

「濟州島學術調査團 70名 22日 現地로 出發」(東亞日報 7. 21)

「濟州島綜合學術調査團 24日 來道」(濟州新報 7. 21)

-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 盛大한 結團式」(濟州新報 7.22 )
- 「濟州島學術調查團 어젯밤 出發」(韓國日報 7.23 )
- 「濟州島에 學術調查團」(國際新報 7.23 )
- 「濟州島：地域社會調查機構」(朝鮮日報 7.24 )
- 「濟州島學術調查團은 이미 出發」(朝鮮日報 7.24 )
- 「濟州島風物帖」金榮浩(韓國經濟新聞 連載 7.24,26,27,28 )
- 「綜合學術調查團 輸送船 今朝 山地에 入港」(濟州新報 7.25 )
- 「綜合學術調查團 歡迎」(濟州新報 7.26 )
- 「分散活動을 開始」(濟州新報 7.28 )
- 「二千年前의 遺物發掘」(濟州新報 7.28 )
- 「綜合學術調查團 醫療班 風土病調查」(濟州新報 7.29 )
- 「濟州島學術調查團 活躍」(朝鮮日報 8.2 )
-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 第1信」(韓國日報 8.2 )
- 「綜合學術調查團 尹團長 全公報室長 어제 來道」(濟州新報 8.2 )
-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 歷史班 發掘」(再建타임스 8.2 )
- 「學術大講演會」(再建타임스 8.2 )
- 「學術調查團서 勤勞女性들 健康狀態調查」(濟州新報 8.11 )
- 「濟州島學術調查團 오늘 서울 歸還」(韓國日報 8.12 )
- 「濟州島學術調查團 歸京：豫想外의 成果」(韓國日報 8.13 )
-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 地理班 調查報告」朴魯植(韓國日報 8.21 )
- 「濟州道紀行」張德順(釜山日報 連載 8.24,25,26,27,28,29,30,9.1 )
- 「耽羅의 硯記：濟州島學術調查團 落穂錄」趙東華(朝鮮日報 連載 8.25,26,27,28 )
- 「濟州島學術調查記」李崇寧(東亞日報 連載 8.26,28,29 )
- 「趣味의 濟州經濟」高炳佑(朝鮮日報連載 9.6,7. )
- 「濟州島學術調查에 큰 成果」(大學新聞 9.7 )
- 「學術調查活動은 보다 強力해야 한다」(大學新聞 9.7,社說 )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 歷史考古班報告」金錡俊(韓國日報 9.9)

「漢拏山東西縱走記」林應植(새세대 連載 9.21,10.17)

其他 各調查班의 調查表 및 設問紙 등의 資料